

월급만으론 못 버틴다... 中企 근로자 '생계형 투잡' 늘었다

중소벤처연구원 '부업 실태분석'

부업 인원 10년 새 37.1% 증가
재직 중 부업 비중 2%대 넘어서
50대·소기업 종사자·임시직에 집중
유연근로·대체인력 지원확대 필요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추가 근로 허용,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안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 9일 내놓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근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투잡 등 부업을 뛰는 이들의 비중(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1.56%에서 2024년 2.01%, 2025년 2% 등으로 2%대를 넘어서었다.



특히 부업자 숫자는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에는 37만9000명으로 이 기간 10만2000명(37.1%)이나 늘었다. 부업자비중도 최근 5년간 0.43%포인트(p) 늘었다.

종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부업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평균 2%) 기준 부업자 비중은 4인 이하가 2.91%로 가장 높았고 5~29인 1.98%, 30~299인 1.47%로 각각 파악됐다.

계약기간 없이 계속 근로를 하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부업하는 인원이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많은 2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 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42.6%에서 지난해엔 52.6%로 10년새 10%p 늘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이들 상용근로자 역시 생

계를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의 부업이 많았다. 부업하는 중소기업 임시직 비중은 42.4%로 대기업 임시직 부업자(21.8%)보다 20.6%p 높고,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24.5%)보다 17.9%p 높게 나타났다.

연령 중에선 중소기업 재직자가운데 50세 이상의 부업자 비중이 53.1%로 39세 이하(27.6%), 40~49세(19.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기업과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부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소득격차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52시간 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자녀교육 등의 이

유로 추가소득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부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일시휴직 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3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 일시휴직자(41만3000명)의 79.3%를 차지하며 코로나 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증가를 위해 부업하는 이들의 근로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며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등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업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29인 이하 소기업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사업도 개편해야 한다"면서 "29인 이하 소기업의 일시휴직자를 위해 해선 저학력 고령 휴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경력전환 지원, 육아 휴직자를 위해 해선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상향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기반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고 중심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약 134만명)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소상공인24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81만명을 대상이다. 중기부는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 맞춤형 정책 알림은 여성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12일 소상공인24DB 내 여성 1인 자영업자 중 정책정보 홍보에 동의한 10만명에게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LS그룹, ESS·DC·데이터센터 솔루션 경쟁력 부각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참가 배터리 소재·모빌리티로 외연 확장 계열사 시너지로 미래 사업 강화



'인터배터리 2026' LS 부스 조감도. /LS그룹

LS그룹이 11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배터리 소재부터 전력·데이터센터·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미래 전략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9일 LS그룹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6개 계열사와 공동으로 45부스(406㎡)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직류(DC) 솔루션, 데이터센터, 미래 소재, 전기차(EV), 스마트팩토

리 등 6개 테마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솔루션과 기술 역량을 소개한다. 특히 차세대 ESS와 직류 패키지 솔루션 등 전략 신제품을 전면에 배치한다. '올인원 ESS 플랫폼(All-in-One ESS Platform)'은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상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사전 고장을 예방하는 차세대 ESS 솔루션이다.

LSMnM은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각화한 콘텐츠를 통해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원료 확보부터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기반 공급망 구축 계획을 설명한다.

LS머트리얼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피크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고속 충·방전 에너지저장 솔루션 '울트라캐퍼시터(UC)'를 소개한다.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셀듈(CellDule)'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다.

LS알스코는 합작사 하이엠케이(HAIMK)와 함께 배터리 제조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알루미늄 소재와 핵심 부품을 선보이고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첨단 소재 기술을 강조한다.

LS사우타는 데이터센터 인프라관리 시스템(DCIM) 솔루션 '비욘드 엑스 큐브(Beyond X CUBE)'를 공개한다. AI 영상 분석 기반 배터리 화재 감시, 소규모언어모델(SLM) 기반 배터리 진단, AI 기반 온도 제어, 실시간 유체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열·기류 분석 등 통합 설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양사, 이온교환수지 기술력 선보여

바이오 발효 엑스포 차이나 참가

삼양사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중국 제남에서 열리는 국제 생물발효전시회 '바이오 발효 엑스포 차이나'(BIO CHINA)'에 참가해 차별화된 이온교환수지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바이오 차이나는 바이오 발효 산업과 연관된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물발효전시회로 식품, 음료, 바이오제조, 바이오농업,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삼양사는 식품과 바

이오 시장에서 아미노산과 유기산의 고순도 정제 기술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관련 공정에 활용되는 프리미엄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제품을 전시한다.

이온교환수지는 0.3~1mm 내외의 알갱이 형태로 된 합성수지로 표면에 전하가 있어 특정 물질을 흡착하거나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특히 입자 크기와 구조가 균일한 균일계 이온교환수지는 분리 성능과 재현성이 높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자력 등 첨단 산업에서도 필수 소재로 꼽힌다.

/원관희 기자

SK인텔릭스, 나무엑스로 글로벌 진출 모색

MWC서 AI 웰니스 플랫폼 공개 보안·헬스케어 기능 강화

SK인텔릭스가 'MWC 2026(Mobile World Congress 2026)'에 참가, AI 웰니스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를 공개하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했다.

9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 마련한 SK인텔릭스 현장 부스에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업계 관계자, 인플루언서, 크리

에이터 등 총 7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SK인텔릭스는 나무엑스의 자율주행과 100% 음성 제어가 가능한 에어 솔루션(Air Solution), 비접촉식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등 주요 기능을 하나의 디바이스에 통합한 AI 기반 웰니스 플랫폼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처음 공개된 '시큐리티(Security)'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긴급 출동형 '보안 경비 서비스'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기정원

스케일업·글로벌 팀스 일반 운영사 59곳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케일업 팀스·글로벌 팀스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일반 운영사 5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9일 기정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일반 운영사' 제도에 따라 처음 선정한 것으로,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기업과 함께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기존 24개 특화 운영사 컨소시엄에 더해 이번에 일반 운영사가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운영사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망기업에도 더욱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일반 운영사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사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투자사로 구성되며 최대 6년간 활동한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부산·경남·강원·충남 등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 5개사도 포함됐다.

스케일업 팀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유망 중소기업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